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neos leads gas and tanker newbuilding deals at Hyundai yards worth \$502m

4월 1일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했다고 발표한 선박 중 91,000CBM급 VLGC 2척의 선주는 일본 Eneos Ocean이라고 보도됨. 2022년 하반기에 인도될 이들 선박 2척은 LPG와 재래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Petronas declares force majeure at field offshore Myanmar

말레이시아의 Petronas가 미얀마 인근 Yetagun Gas전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고 보도됨. 3.2조평방피트의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Yetagun field는 2000년에 가동을 시작하여 2030년까지 가동이 예상됐으나,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보도됨. (Upstream)

Major investor tips its view of International Seaways-Diamond S merger

International Seaways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Cyrus Capital Partners가 Diamond S Shipping 인수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보도됨. 합병에 나선 양사는 앞서 Seaways 주주 14%와 Diamond S 주주 29%가 합병에 찬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양사가 합병할 경우 기업가치는 약 20억달러로, 미 증시 상장 탱커 선사 중 2위가 된다고 알려짐. (TradeWinds)

Ruiyang Shipping orders six 2,500-teu containerships at Zhoushan Changhong

중국에 Ruiyang Shipping가 Zhoushan Changhong International Shipyard에 6척의 피더컨테이너선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라고 알려짐. 발주처는 2021년초 이미 12척의 1,800TEU급 컨테이너선을 대량 발주한바 있음. (TradeWinds)

두꺼운 철판값 놓고 철강·조선업체 줄다리기… '인상'으로 가닥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조선용 후판(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 가격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한 조선사와 조선용 후판 공급가격을 톤당 10만원 이상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됨. 물량을 더 많이 공급하는 조건이 따라붙었지만 철강업계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가격이라고 보도됨. (조선비즈)

한국 조선,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배 수주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올해 1분기 작년의 10배에 달하는 신조 수주를 따냈다고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1분기 전세계 발주액은 총 1,024만CGT(323척)이며 한국은 532만CGT(126척)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수주 점유율은 52%로 전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확보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